

# 시멘트업계, 탄소중립 로드맵 공유… “굴뚝산업 벗어날 것”

##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

탄소 포집·활용 기술연구 박사  
원료 등 재활용 분야 협업 확대  
“자원순환사회 핵심 산업 도약”

우리나라 시멘트업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연탄 대신 순환자원 활용을 적극 늘리는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모색에 적극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호소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3410만톤(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01만t, 2050년엔 1603만t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신화월드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10년만에 개최하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0여 개국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약 500여명이 참여하는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이번 3RINCs



(왼쪽부터)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 동국대 남은영 교수, 피터 호디노트 전 유럽시멘트협회장, 공주대 김진만 교수 등이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내 시멘트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의 순환자원화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특별 세션으로 채택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업계는 ▲클링커 생산 시 슬래그 및 플라이애시(석탄재)와 같은 탈탄소 원료 대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혼합재 함량을 높이는 기술 ▲새로운 혼합재 및 혼합 시멘트 제조 기술 개발 ▲기존 유연탄을 순환 연료로 대체하는 기술 등을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

획이다.

피터 호디노트 전 유럽시멘트협회장 겸 라파트 그룹 부회장은 “대규모 CCU·CC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기술 도입에 앞서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탄소중립 실현 경로”라며 “CCU·CCS 기술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활용 자원과 저탄소 혼합시멘트의 활용 확대와 같은 대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시멘트산업에 정통한 전문가로

잘 알려진 그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의 약 80%는 순환자원 재활용 대체연료를 활용해 만들며 약 25%는 저탄소 순환자원이 혼합시멘트의 클링커 대체재로 재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순환자원은 석탄재, 슬래그, 폐플라스틱, 페타이어 등을 말한다.

일본 시마네대학 아타라시 교수는 “연간 4000만t을 생산하는 일본 시멘트 산업은 석탄재, 고로 수재 슬래그, 건설 폐기물, 하수 오니 등 많은 양의 산업 폐기물과 부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화석연료인 유연탄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약 30%

에 달하는데 일본은 이를 페타이어,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김석완 회장은 “국내 시멘트업계가 수 십년 동안 우수한 시멘트 품질을 유지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멘트 산업에서 확인된 시멘트 제조공정상 폐기물의 안정적인 연료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시멘트 킬른에 ‘순산소 연소 기술(Oxy Fuel)’을 적용하는 등 대체 연료의 효과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업계는 원료, 연료 순환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학계와 구체적인 협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은 “이번 3RINCs 참여를 계기로 향후 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멘트산업에서의 안전하고 실효성 높은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확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회의 객관적, 전문적 조언을 바탕으로 굴뚝산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롯데렌탈, ‘T car’ 공개… 중고차 사업 본격화

직접 구매·관리 장기렌터카 판매  
“안전하고 쾌적한 구매경험 제공”

롯데렌탈이 중고차 브랜드 ‘T car’를 공개하고 중고차 소매(B2C) 사업을 본격화한다.

롯데렌탈은 중고차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구매 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신뢰&토탈 케어’를 브랜드 철학으로 한 T car 브랜드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T car는 롯데렌터카가 직접 구매하고 관리한 장기렌터카 차량만 판매한다. 주력 판매 차량은 연식 3~4년 차 현대차·기아차종이며 단기렌터카 차량은 제외한다. 차량 정비 전문가가 관리하며, 법정 성능검사와 보험 이력 등 관리



롯데렌탈 ‘T car’ 브랜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롯데렌탈은 고객이 차량을 충분히 경험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7일 이내 책임 환불제를 도입했다. 판매 이후에도 1년간 방문점검과 엔진오일 무료 교체 서비스인 ‘차방정(차량방문정

비 서비스)’과 ‘차방정 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롯데렌탈은 T car의 차별화된 관리 서비스를 내세운 광고 캠페인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광고는 ‘믿고 탈 수 있는 중고차의 웰리T’를 강조한 ‘Trust 편’과 1년간 무상 방문 정비 서비스를 부각한 ‘Total Care 편’으로 구성됐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중고차 소매 사업 진출 선언 이후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브랜드 T car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롯데렌터카가 축적해 온 차량 관리 노하우와 플랫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차 구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케이카, 1분기 사상 최대실적 달성

매출 6047억, 영업이익 215억 집계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가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케이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2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0.04% 늘어난 604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다.

국내 소비 침체 등에 따른 중고차 시장 위축에도 인공지능(AI) 기반 수요 예측과 시세 산정 등 내실화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케이카는 설명했다.

소매 판매 부문의 효율적 재고 관리와 경매 부문의 거래 확대도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경

매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1% 늘었다.

케이카는 지난달 세종 제2경매장 주차 공간 확충 등 경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케이카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적정 가격 운영, 다양한 매입 경로를 통한 고객 니즈 충족, 시기별 수요에 따른 재고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일 계획이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올해 1분기 실적은 케이카가 보유한 데이터 기반 AI 역량과 중고차 시장 재편 영향이 가져다준 긍정적 모멘텀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혁신적 서비스와 맞춤형 솔루션, 안정적 재무 성과를 통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대한상의 “韓 기업, 인권경영 필요성 커져”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한국협회와 함께 12일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와 규범, 우리기업의

인권실사 평가결과,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조선희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실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국내에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이슈는 거의 없어졌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우리기업의 인권경영 현황과 인권실사 실시 확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제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기업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아젠다인 만큼 기업 현장에서 예측가능한 인권 리스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친환경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국내외 사업장 노동인권을 살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며 “인권 관련 규제로 우리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 국회, 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핑크퐁 아기상어, 美 ‘포커스 아트페어’ 간다

더핑크퐁컴퍼니 韓 캐릭터 최초 초청

핑크퐁 아기상어가 세계 현대미술의 심장부, 뉴욕 첼시에서 K콘텐츠의 지력을 선보인다.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이하 아기상어)’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포커스 아트페어 뉴욕 2025’에 초청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캐릭터로서 최초다.

포커스 아트페어는 글로벌 아트에이전시 흥리가 주최하는 현대미술 행사다. 행사는 매년 40여 개국의 갤러리가 참여해 뉴욕, 파리, 런던 등에서 순회

개최하는 국제 아트페어다.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IP 아기상어는 244개국 25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글로벌 파급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 세계 최초 100억 뷰 돌파 등 총 4건의 기네스 기록을 세우며 K콘텐츠의 신기록을 써온 아기상어의 10년 여정을 음악과 아트워크 스토리텔링으로 조명한다.

더핑크퐁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아기상어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술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